

거미줄에 빠져 지낸 ‘8년간의 기록과 성찰’

전직 교사 최남열씨 사진·에세이집 출간
거미줄의 사계절 변화 등 담아 제8부 구성
“거미줄과 만남, 사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아무리 희귀한 소재를 발굴한다고는 하지만 거미줄을 가지고 여러해 탐색한 결과를 묶은 도서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금호고 등 교육현장에서 영어 교사로 31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최남열씨로, 출판사 휴앤스토리 맑은샘에서 나온 사진·에세이집 ‘작은 거미줄에 걸린 큰 이야기’가 그것.

‘렌즈에 담은 빛의 무늬와 대화’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사진·에세이집은 저자가 지난 8년 동안 산하를 다니며 거미줄을 촬영해 모은 기록과 성찰을 담았다.

저자는 거미줄에 대해 단순한 생존 도구가 아니라, 자연이 빚어낸 정교한 예술 작품이자 삶의 은유로 인식한다. 그에 따르면 거미는 중력과 바람이라는 질서 속에 순응, 때로는 먹이를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고, 때로는 찢어진 거미줄을 수선하는 한편,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펼쳐 나간다. 그 주변에서는 종종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자연의 섭리가 답답하게 흘러간다는 시각이다.

특히 이슬과 햇빛을 머금은 거미줄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인간의 예술 활동과도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보는 저자는 이 책에서 거미줄의 사계절 변화, 빛과 색의 조화, 그리고 감상하는 다양한 시선을 제시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작은 아름다움과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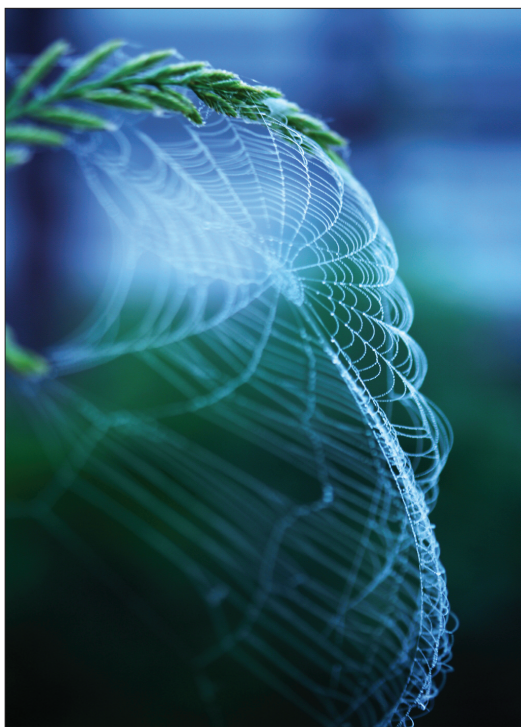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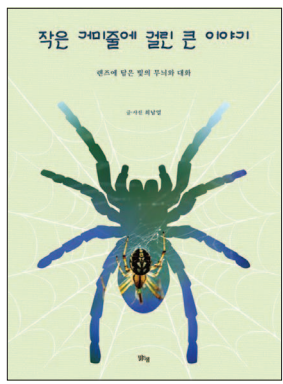
지혜를 전하고자 했다. 아울러 아름다운 거미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아말로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되는 것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연과 더 친밀해지고, 삶의 여유와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자는 시작하는 이야기를 통해 거미에 대한 애뜻한 감성을 드러낸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미줄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마치 신기루처럼 아른거리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빠져든다.

거미줄은 단순한 거미의 생존 도구를 넘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삶의 지혜와 아름다움의 상징과도 같다.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거미의 모습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한다. 중력에 의해 축 늘어진 거미줄, 바람을 타고 부풀어 오를까 다란 실, 그리고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모습은 거미와 자연이 협력해 만들어 낸 하나의 작품이라고 정의한다.

거미줄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존재라는 설명이다. 거미줄 위를 가볍게 오가는 거미의 유연한 움직임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 섬유의 탄력성과 강도는 과학자들에게 끊임없는 연구 주제를 제공



금호고 등 교육현장에서 영어 교사로 31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최남열씨가 거미줄만 8년간 추적해온 결과물을 실은 사진·에세이집 ‘작은 거미줄에 걸린 큰 이야기’를 펴냈다. 사진은 다양한 공간에서 촬영된 거미줄 사진.

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패턴과 형태를 가지며, 자연이 창조한, 정교한 예술 작품처럼 다가오기도 한다는 점 또한 잊지 않았다.

이 사진·에세이집은 ‘자연이 그려낸 실의 질서-사계, 중력, 바람, 물방울’을 비롯해 ‘생과 사 사이, 거미줄 위에서-먹이, 위기, 거리’, ‘거미의 본질, 자연의 화폭-무늬와 시선의 미학’, ‘거미가 만든 그림-동물, 사물, 기호’, ‘액자 속 실의 풍경들-속담, 종교, 민속’, ‘꽃과 풀잎 위에 놓인 실의 선율-배경과의 조화’, ‘빛과 색이 머문 그물-계절의 색감 실험’, ‘실 너머의 이야기들-출사, 신화, 풍경’ 등 제8부로 구성됐다.



저자는 “8년 전, 이슬 맺힌 거미줄과의 우연한 만남은 제 사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미줄을 꾸준히 사진으로 기록해 오고 있다. 제게 거미줄은 자연의 이치를 되새기고 삶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이자, 자연 속을 걷게 해주는 건강한 길동무”라면서 “아름다운 거미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는 일상 속 작은 희망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자인 최남열씨는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남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금호고등학교 영어 교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영어단어 퀴즈게임’이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mailto:rainidea@gwangnam.co.kr)

CULTURE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시민참여 투어 프로’ 참여자 모집
광주비엔날레, 내달 20일부터 진행

(재)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윤범모)가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시민참여 투어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오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두 가지 코스로 기획됐다.

첫 번째 투어 프로그램은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를 어떻게 끌어안는가?’이다. 곧 개막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주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인간을 어떻게 끌어안는가’와 연결돼 광주 지역 미술 기관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참여대상은 만 10세 이상의 일반인 개인 혹은 단체로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어 두 번째 투어 프로그램 ‘예술이 도시를 기억하는 방식’은 광주비엔날레와 도큐멘타 인스티튜트의 공동 연구협력사업인 ‘도시정책과 비엔날레’를 주제로 5·18 사적지를 돌아본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 주제와 연관이 있는 전공자 및 전문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506보안부대와 구 국군광주병원 등이 포함된 예술과 역사의 접점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시민참여 투어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금·토 진행하며, 추석주간인 10월 10일, 11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한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8-4274.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mailto:rainidea@gwangnam.co.kr)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창제작 본격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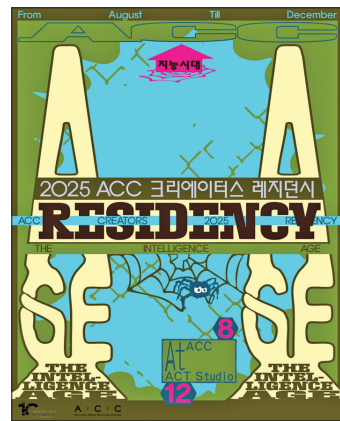
문화전당, 아트&테크 전문가 등 6개국 9개 팀 활동 시작
‘지능시대’ 주제 기술 연구·실험 프로젝트…11월 쇼케이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25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참여자 13명(6개국 9개 팀)이 최근 입주를 마치고 프로젝트 창제작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ACC는 지난 2015년부터 창의적 표현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다분야 전문가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창·제작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능시대’ (The Intelligence Age)를 주제로 ‘아트&테크놀로지’ 5개 분야의 창·제작자를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진행해 지난 6월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5개국 8개 팀(12명)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올해는 ACC 서아시아 네트워크 협력 사업의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레지던시 참여자들은 다각적인 프로젝트 연구와 함께 인터랙티브 장치, 웨어러블 디바이스, 3D

스캔, 모션 캡처, 키네틱 미디어, 오디오비주얼, 입체음향 등 다양한 기술 및 매체 기반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창·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ACC 시설 및 공간, 창제작스튜디오 투어를 비롯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의 운다’의 배경인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탐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창제작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열리는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창·제작 프로그램은 8~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20일에는 ‘렉처&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레지던시 주제 강연과 함께 참여자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아트&테크 전문가, 예술가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며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를 다지는 기회도 마련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mailto:rainidea@gwangnam.co.kr)

빌 게이츠,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3년만에 방한…이달 중 방송 예정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세계적 부호 빌 게이츠(사진)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국내 시청자를 만난다.

CJ ENM은 18일 빌 게이츠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다며 이달 중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이자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기후변화, 빈곤 퇴치 등에 힘쓰고 있는 자선 사업가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이달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3년 만에 방한을 결정했으며 국내 방송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비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mailto:rainidea@gwangnam.co.kr)



검색창에
광주판촉물
검색
나라장터
S2B
학교장터
등록업체

판촉물 / 기념품 / 굿즈

과주파촉물

www.광주판촉물.com
062.376.5431